

주요용어 : 소진, 자아존중감, 암환자

암환자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 분석*

신 미 혜** · 신 성 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소득의 증가와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킨 반면, 이로 인한 생활습관과 환경의 변화는 각종 암 발생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1990년 110.4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22.1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10.4%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암환자의 높은 사망률은 암환자의 병상 점유율 증가와 병원에서 임종하게 되는 환자의 수를 증가시켜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암으로 인한 고통,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간호요구가 다른 환자들 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책임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부족한 환자간호 수행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며, 의욕상실에 따른 무력감과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간호사가 반복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업무에 불만족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적인 직업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환자와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어 마침내는 간호직을

떠나게 된다(Lavandero, 1981).

소진으로 인해 간호직을 떠나는 개인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그만큼 실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며, 조직은 유능한 사람을 잃게 되고 환자들은 경험있는 간호사들의 간호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진을 경험하는 고용인과 고용주, 그리고 환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Moss, 1989).

지금까지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 있는 한 두가지 변수, 즉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류춘지, 1992),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박성석, 1995), 업무 스트레스와 강인성(함미영, 1997),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김혜숙, 2001),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이해옥, 1987), 직무만족도와 자아개념(이옥숙, 1987), 역할지각(신혜숙, 1986)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 분야별 간호사 소진에 대한 연구로는 수술실 간호사(송말순, 1985), 신장실 간호사(송명숙, 1997), 골수이식병동 간호사(임정혜, 1999), 지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조영미, 1999)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대처유형의 연구(서민정, 2001)가 있었으나,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소진을 감소시키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임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기 위해서는 소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과 관련된 변수로 보고된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및 업무 스트레스가 소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므로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지지 및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소진과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및 업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소진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업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적인 근무태도, 환자에 대한 관심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을 지칭한다(Lavandero, 1981). 본 연구에서는 Pine, Aronson 그리고 Kafry(1981)가 개발한 소진 척도를 픽은희(1983)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2)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영적안녕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최고

의 가치,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Carson, 1989).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오복자(1997)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Thiots, 1982).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사회적 지지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 업무 스트레스

간호사가 업무상황에서 불안, 갈등,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환경적 또는 내적 요구를 충족할 능력 정도가 초과되거나 적응력이 혹사되어 일어나는 상태이다(홍근표, 1984). 본 연구에서는 Gray-Toft 와 Anderson(1981)이 개발하고 김은하(1995)가 수정 보완한 업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와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암 전문병원 1곳, 종합병원 4곳 중 입원환자의 50% 이상이 암환자로 구성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28명이었다. 대상자들의 근무병동은 호스피스 병동, 내과 병동, 외과 병동이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12문항, 소진 2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영적안녕 20문항, 사회적 지지 24문항, 업무 스트레스 31문항으로 총 117문항이었다.

1) 소진

소진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ine 등(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를 픽은희(1983)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탈진 6문항, 정서적 탈진 7문항, 정신적 탈진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5점 척도이고, 경험 정도에 따라 '없다'는 1점, '항상'은 5점을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경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1이었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2)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문항은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62이었다.

3) 영적안녕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오복자(199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홀수번호의 문항들은 종교적 영적안녕, 짝수번호의 문항들은 실존적 영적안녕을 사정한다. 도구는 6점 척도로 '대단히 찬성한다'에 6점, '대단히 불찬성한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7이었다.

4)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2이었다.

5) 업무 스트레스

Gray-Toft와 Anderson(1981)이 제시한 Nursing

Stress Scale에 근거하여 김은하(1995)가 작성한 도구이다. 총 31문항으로 과중한 업무량 6문항,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 7문항, 부적절한 준비 2문항, 직원 지지의 결여 2문항, 관련된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4문항, 의사와의 갈등 5문항, 다른 간호사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이며, '매우 자주 느낀다'에 4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9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7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한 1개의 암전문 병원, 4개의 종합병원에서 2002년 10월 18일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 기간동안 배부된 설문지는 총 175부로 172(98.3%)부가 수거되었으나, 32부는 설문에 응한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에 50%가 암환자가 아닌 관계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28부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0.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진,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는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의 차이는 t-test, ANOVA, Tukey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3) 소진과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소진의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2세-55세로 평균 28.8세이었고,

30세 미만이 79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였다. 여자가 128명(100%)이었고, 미혼이 79명(61.7%), 기혼이 48명(37.5%)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62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32명(25.0%), 천주교가 20명(15.6%)이었다.

학력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가 91명(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32명(25.0%), 대학원 졸업자는 5명(3.9%)이었다. 총 경력은 2개월에서 247개월까지로 평균 74.28개월이었으며, 5년 미만이 60명(46.9%)이었고, 10년 미만이 37명(28.9%)으로 대부분(75.8%)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 근무지 경력은 2개월에서 186개월까지로 평균 49.32개월이었으며, 5년 미만이 83명(6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 부서는 내과계가 74명(57.8%), 외과계가 47명(36.7%), 호스피스 병동이 6명(4.7%)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111명(86.7%)으로 가장 많았고, 월 수입은 150-200만원이 64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간호직에 종사할 예정 기간은 '필요한 기간 동안까지만 하겠다'가 67명(52.3%)이었고,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할 예정이다'가 40명(31.3%), '가능한 한 빨리 사직'이 7명(5.5%)이었다. 간호직에 대한 태도는 '가정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다'가 62명(48.4%), '이상적인 전문직이다'가 32명(25%), '기회가 되면 간호직을 떠날 것이다'가 24명(18.8%), '결혼하기 전까지 잠정적인 직업이다'가 7명(5.5%)이었다.

2. 대상자의 소진,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 정도

1) 소진

암환자 간호사의 소진은 총 20개 항목으로 평균평점 2.72점이었(Table 1). 소진 정도를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신체적 소진은 평균평점 2.92점, 정서적 소진은 2.76점, 정신적 소진은 2.49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소진 중 평점이 가장 낮은 항목은 '삶의 수단으로 간호사를 한다(2.62)'이었고, 가장 높은 항목은 '근무를 마치고 나면 지친다(3.20)'이었다. 정서적 소진 중 가장 낮은 항목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2.04)'이었고, 가장 높은 항목은 '병원 및 간호 행정에 대해 만족한다(3.63)'이었는데 이 문항은 역환산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행정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신적 소진 중 가장 낮은 항목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가 귀찮다(1.93)'이었고, 가장 높은 항목은 '간호직의 전망을 밝으며 간호사는 내게 어울리는 직업이다(2.92)'이었는데 이는 역환산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간호사가 어울리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2) 자아존중감

암환자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평균 평점 3.72점이었(Table 1). 각 항목 중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4.0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3.38)'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문항 모두 역환산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3) 영적안녕

암환자 간호사의 영적안녕은 총 20문항으로 평균평점 3.83점이었(Table 1). 종교적 영적안녕은 3.49점이고 실존적 영적안녕은 4.16점으로 실존적 영적안녕 점수가 더 높았다. 각 문항별 평균평점은 '나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4.4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나는 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3.22)'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4) 사회적 지지

암환자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총 24문항으로 평균 평점 3.74점을 나타내었다. 각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정서적 지지는 3.79점, 평가적 지지는 3.80점, 정보적

(Table 1) Burnout,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Job stress of subject (n=128)

Variable	Mean Score	SD	Min-Max	Range of tool
Burnout	2.72	0.42	1.65-3.65	1-5
Self-esteem	3.72	0.38	2.50-4.70	1-5
Spiritual well-bing	3.83	0.66	2.40-5.95	1-6
Social support	3.74	0.38	2.46-5.00	1-5
Job stress	2.16	0.34	1.16-3.48	1-4

지지는 3.73점, 물질적 지지는 3.60점으로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평점은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3.91)'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3.44)'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5) 업무 스트레스

암환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총 31문항으로 평균평점 2.16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파중한 업무량이 2.35점,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이 2.38점, 부적절한 준비가 2.33점, 직원 지지의 결여가 2.00점, 관련된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1.99점, 의사와의 갈등이 2.07점, 다른 간호사와의 갈등이 1.83점으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평점은 '환자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너무 적다(2.8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른 병동에 임시 근무하러 간다(1.31)'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일반적인 특성 중 소진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총경력, 직위,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사후검증 결과 20대가 30대보다 소진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가 대학원 졸업자보다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이 '가능한 오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근무 하겠다는 사람과 '가능한 한 빨리 사직' 하겠다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진을 보였고, '필요한 기간동안만' 근무하겠다는 사람은 '가능한 오래' 근무하겠다는 사

<Table 2> Burnout of subjec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	Burnout		
		M(SD)	t/F	p
Age	20-29	2.82(.37)	a	4.86 .00
	30-39	2.58(.47)	b	
	40-49	2.41(.27)		
	above 50years	2.33(.46)		
Material status	single	2.81(.39)		5.40 .01
	married	2.58(.43)		
	divorced	2.25(.00)		
Education	3years college	2.77(.38)	a	3.91 .02
	4years college	2.62(.49)		
	graduate school	2.32(.43)	b	
job experience	under 5years	2.85(.39)		3.88 .01
	5-9	2.65(.40)		
	10-14	2.60(.48)		
	15-19	2.51(.39)		
	above 20years	2.17(.11)		
Position	nurse	2.77(.40)		3.26 .01
	charge nurse	2.45(.41)		
	head nurse	2.34(.50)		
	others	2.30(.00)		
	no reponse	2.35(.00)		
nursing service period	가능한한 오래	2.54(.44)	a	6.28 .00
	필요한 기간 동안만	2.76(.39)	b	
	가능한한 빨리 사직	3.19(.26)	c	
	잘 모르겠다	2.80(.36)		
attitudes on nursing job	이상적인 전문직	2.47(.47)	a	5.57 .00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	2.73(.33)	b	
	결혼하기 전까지 잠정적 직업	2.91(.58)		
	기회가 나면 떠날 것이다.	2.94(.40)	b	
	무응답	2.85(.18)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Burnout of subject (n=128)

	β	R	R ²	F	p
Self-esteem	-.252	.417	.174	26.511	.000
Spiritual well-being	-.170	.503	.253	21.217	.000
Social support	-.229	.536	.287	16.663	.000
Job stress	.189	.557	.310	13.840	.000

<Table 3> Correlation among Burnout,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Job stress of subject

	Burnout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Job stress
Burnout	1.00				
Self-esteem	-0.417**	1.00			
Spiritual well-being	-0.403**	0.328**	1.00		
Social support	-0.386**	0.500**	0.227*	1.00	
Job stress	0.206*	-0.027	-0.133	-0.055	1.00

* p<0.05 ** p<0.01

람보다는 소진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능한 한 빨리 사직'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소진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이상적인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기회가 나면 떠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진을 보였다.

4. 대상자의 소진,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암환자 간호사의 소진과 자아 존중감,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소진은 자아존중감($r=-.417$, $p<.01$), 영적안녕($r=-.403$, $p<.01$), 사회적 지지($r=-.386$,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업무 스트레스($r=.206$, $p<.05$)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암환자 간호사의 소진의 영향요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 존중감,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업무 스트레스를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이들 변수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이 17.4%, 영적안녕이 7.9%, 사회적 지지가 3.4%, 업무 스트레스가 2.3%로 이들 변수 모두는 소진을 3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일반적인 특성 중 소진정도는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총경력, 직위,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적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서민정(2001), 박성석(1995), 픽은희(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학원 졸업자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보다 소진정도가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혼자들에게는 가족의 지지와 삶의 다양한 경험이 소진 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소진 정도의 차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소진 경험이 높다는 Maslach와 Zimbardo(198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이 '가능한 오래'라고 응답한 사람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근무 하겠다는 사람과 '가능한 한 빨리 사직'하겠다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진을 보였다. 그리고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이상적인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기회가 나면 떠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진을 보였다.

이는 간호직에 종사할 예정기간을 소진경험의 예측인자로 보고한 Lazaro(1981)의 연구와, 소진과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Barad(1979)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홍근표, 1983에 인용됨). 이렇게 간호직을 이상적인 전문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소진정도가 낮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72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정(2001)의 암환자의 소진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소진 정도가 2.72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또한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픽은희(1983)의 2.68점, 신혜숙(1986)의 2.47점, 신장실, 내과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성희(1991)의 2.39점, 골수이식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정혜(1999)의 2.61점, 의료보험 심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2002)의 2.7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고통과 요구가 클수록 간호사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간호사 자신의 재충전이 결핍될 경우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는 일에 소극적으로 되고 위축되는 경향(Joseph, 1991)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암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고통,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간호요구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간호사의 높은 에너지 소모가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진을 하부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신체적 소진이 2.92점, 정서적 소진이 2.76점, 정신적 소진이 2.49점으로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민정(2001)의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소진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소진이 간호사들의 일반적 소진정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체적 소진을 예방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72점으로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미옥(2001)의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3.69점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옥숙(1987)의 임상간호사의 자아개념, 직무만족도, 소진경험 정도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5점 척도에서 3.85점으로 비교적 높은 자아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간호사들의 자아 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간호사들의 간호행위 특성상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보다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영적안녕은 6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83점으로 대상자의 영적안녕 정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상순과 허혜경(1998)의 연구에서 4.17점으로 본 연구의 영적안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영적안녕 정도가 낮았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이 25%에 불과했던 반면 최상순과 허혜경(1998)의 연구에서는 56%로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기독교인의 영적안녕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최상순과 허혜경(1998)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74점으로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윤미숙(1999)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도 3.33점 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를 보면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40-50세가 가장 높은 사회적 지지도를 보였고, 20세미만이 가장 낮은 사회적 지지도를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보다는 성인이 사회적 지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도를 다 각도에서 측정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는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16점으로 중간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였는데, 이는 김은하(1995)의 임상근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연구의 2.31점과 비슷하였다. 업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보면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하(1995)의 임상 근무간호사의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만성질환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업무량 과중, 죽음과 죽어감, 부적절한 준비, 직원 지지의 결여에서 급성질환을 간호하는 간호사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그리고 Power와 Sharp(1988)의 연구에서 중환자실과 호스피스병동과 같이 말기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김은하, 1995에 인용됨).

이처럼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다른 간호사들보다는 높았지만 5점 척도에서 중간 정도인 2.72점을 나타낸 것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 영적 안녕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옥숙(1987)의 임상 간호사의 자아개념, 직무만족도, 소진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소진정도가 낮다는 보고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생활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행동하기 때문에(Rosenberg, 1979) 소진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므로 소진정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영적안녕과 소진과의 관계는 전희숙(2000)의 영성과 소진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영성 정도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영적인 안녕감을 갖게되면 비록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Carson, 1989) 영적안녕이 높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소진 정도를 낮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는 류춘지(199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소진의 예방과 회복에 사회적 지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리강순, 199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충격을 수정 또는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Thoits, 1982)하여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류춘지, 1992; 박성석, 1995; 함미영, 1997; 김혜숙, 2001). 따라서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서 소진경험 또한 감소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이 17.4%였으며, 여기에 영적안녕(7.9%), 사회적 지지(3.4%), 업무 스트레스(2.3%)가 추가될 경우 이들 변수는 소진을 3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영적안녕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것은 각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관련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병원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원내 지지모임 등을 통해 이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소진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5개의 종합병원에서 2002년 10월 18일부터 2002년 11월 20일 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암 전문병원 1 곳과 종합병원 4 곳 중 입원환자의 50% 이상이 암환자로 구성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28명이였다. 대상자들의 근무병동은 호스피스 병동,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이었다.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Pine 등(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를 픽은희(1983)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2)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였으며, 영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오복자(199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Gray-Toft와 Anderson(1981)이 개발하고 김은하(1995)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31문항인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72점이고, 신체적 소진 2.92점, 정서적 소진 2.76점, 정신적 소진 2.49점으로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소진정도는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총경력, 직위,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자아 존중감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평점 3.72점이었고, 영적 안녕 정도는 6

점 척도로 평균평점이 3.83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로 평균평점은 3.74점이었다.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평점 2.16점이었다.

3. 소진과 업무 스트레스($r=.206, p<.05$)와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 존중감($r=-.417, p<.01$), 사회적 지지($r=-.386, p<.01$), 영적 안녕($r=-.403, p<.01$)은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17.4%), 영적안녕(7.9%), 사회적 지지(3.4%), 업무 스트레스(2.3%)가 소진에 대해서 31.0%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소진 정도는 다른 간호사들 보다 비교적 높았으며,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생활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진 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미옥 (2001).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 (2002). *의료보험 심사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소진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하 (1995). *임상 근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2001).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소진정도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춘지 (1992).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스트레스 및 소진 정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리강순 (1991). *이직간호사와 현직간호사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석 (1995).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민정 (2001).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대처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말순 (1985). *수술실간호원의 역할스트레스, 소진경험정도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명숙 (1997). *신장실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경험 정도와의 관계*. 고신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숙 (1986). *임상간호원의 역할지각과 소진경험과의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복자 (1997). *암환자의 영적안녕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성인 간호학회지*, 9(2), 189-198.

윤미숙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숙 (1987). *임상간호원의 자아개념, 직무만족도, 소진경험정도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옥 (1987). *임상간호원의 사회적 지지도와 직업만족도 및 소진정도와와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혜 (1999). *골수이식병동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소진 및 대응방법*.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농촌* 11, 107-130.

전희숙 (2000). *영성과 소진경험과의 상관관계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희 (1990). *신장실 간호사와 내과병동 간호사의 소진 경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미 (1999). *지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그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순 & 허혜경 (1998). *임상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2), 109-120.

픽은희 (1983). *간호원의 소진경험정도와 업무 만족간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함미영 (1997).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강인성 및 소진 정도와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홍근표 (1984). *간호원의 소진경험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arson, V. B. (1989).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W. B. Saunders Company.

Johnson, S. H. (1982). Preventing Group Burnout. *Nursing Management*, 13(2), 34.

Lavandero, R. (1981). Nurses burnout: What can we learn?.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Nov-Dec, 17-22.

Maslach, C., & Zimbardo, P. G. (1982). *Burnout-The Cost of Caring*.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Moss, V. A. (1989). Burnout. Symptom, Causes, Prevention. *AORN J*, 50(5), 1071-1076.

Pine, A. M.,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A Division of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Shubin, S. (1978). Burnout. The Professional Harzard you face in Nursing. *Nursing*'78, 8(7), 25.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23, 145-147.

- Abstract -

Predictors of Burnout among Oncology Nurses*

Shin, Mi Hye** · Shin, Sung Rae***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burnout on oncology nurse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October 18, 2002 to November 20, 2002 in five general hospitals at Seoul.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he nurses who worked in the wards occupied by more than 50 percent of cancer pati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10.0 program.

Result: 1. The burnout of the subjects show a mean score of 2.72 using the 5 point Likert scal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urnout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job experience, position, nursing service period, and attitudes on nursing job.

2 The self-esteem of the subjects show a mean score of 3.72 using the 5 point Likert scale. The spiritual well-being of the subjects show a mean score of 3.83 using the 6 point Likert scale. The social support of the subjects show a mean score of 3.74 using the 5 point Likert scale. The job stress of the subjects show a mean score of 2.16 using the 4 point Likert scale.

3. The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burnout and other variable was that relationship between the burnout and job stress($r=.206$, $p<.05$), self-esteem($r=-.417$, $p<.01$), spiritual well-being ($r=-.403$, $p<.01$), social support($r=-.386$, $p<.01$) were significant variables.

4. The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that self-esteem (17.4%), spiritual well-being(7.9%), social support(3.4%) and job stress(2.3%) explained 31% of burn out.

key words : Burnout, Self-esteem, Cancer patients

* This study is a master's thesis at the Sahmyook University
**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